

십일면관음입상

이 불상은 소장하고 있는 다른 십일면관음상과 동일하게, 중심이 되는 하나의 얼굴과 머리 부분에 10 개의 얼굴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몸에는 접혀 있는 여러 모양에서 얇은 의복의 주름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불상의 11 번째 얼굴은 가장 높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깨달음의 11 번째, 즉 최종 단계에 접어든 부처를 의미합니다. 오른손을 내리고 있는 자세에서 소원의 성취를 의미하는 인상(印相, 불상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손의 모양)을 취하고 있으며, 왼손은 연꽃을 담은 꽃병을 들고 있습니다.

불상은 편백나무로 조각되었으며 높이는 498cm 에 이릅니다. 불상의 왼쪽 상완부 뒤편에서 발견된 명문(銘文)을 통해 조각상이 1069 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대작을 이토록 정확한 연대까지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은 드문 일이기에, 예술사학자들은 이 작품을 특히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성관음과 동일한 불사(佛師)가 제작한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